

광양시 불법 오물분쇄기 근절 나섰다

20일까지...판매업체·음식점 대상
하수배관 막힘·오수 역류 주요인
거름망 제거 등 개·변조 제품 불법

광양시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 및 사용을 근절하고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2일부터 20일까지 관내 판매업체 및 음식점 등 영업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공공하수도 기능 유지를 위해 하수도로 직접 배출되는 음식물 찌꺼기의 양이 20% 미만이어야 하며, 80% 이상은 회수통을

통해 별도로 배출돼야 한다.

회수통이나 거름망을 제거한 개·변조 제품이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가정 내 하수배관 막힘, 오수 역류로 인한 악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고농도 오수가 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경우 처리 비용 증가와 시설 운영 차질 등 심각한 부작용도 초래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변조하거나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법적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 원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다. 단,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식당 등 영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유효 제품에 대한 정보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통합인증정보망(kwtc.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강병재 광양시 하수도과장은 "미인증 제품 유통 및 불법 개조로 인해 하수관로에 이물질이 과다 유입되면서 막힘과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인증 제품을 사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만잡월드’ 개관 첫날 뜨거운 호응

가족단위 방문객 몰려 전석 매진
미래기술·예술 어린이 직업체험

어린이 직업체험관 ‘순천만잡월드’가 지난날 31일 어린이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개관했다.

순천만잡월드는 아이들이 미래 직업을 놀이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를 갖춘 공간으로 재구성됐으며, 개관 첫 날 전 회 매진을 기록했다.

특히 체험관 입구에는 우주 공간을 모티브로 한 통로와 별자리를 형상화한 조명이 설치되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중앙광장에는 누리호 상징 조형물인 ‘꿈나래호’가 자리해 아이들이 마치 우주선을 타고 미래 직업 세계를 탐험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체험관은 미래기술·예술창의·공공안전 세 가지 테마로 운영된다. 먼저 미래기술 체험관에서는 AI센터, 로봇연구소, 드론개발센터 등의 첨단기술 기반 직업을, 예술창의 체험관에서는 K-POP랜드, 뷰티쇼, 애니메이션 등 창의력과 감성을 키우는 체험을 하게된다. 마지막 공공안전

체험관에서는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안전 분야 직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개관일에는 ‘잡월드 3GO(잡월드와 함께, 즐기GO, 만들GO, 꿈꾸GO)’ 특별 이벤트가 함께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들의 꿈을 담은 타임캡슐 퍼포먼스, 팝페라 공연, 마술쇼, 별문쇼, 캐릭터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하루 종일 이어지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사진〉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만잡월드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로봇 교육과학과의 연계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직업 체험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일부터 8월30일까지 할인 요금제를 적용하여 더 많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직업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체험 예약은 순천만잡월드 공식 누리집(www.scjw.or.kr)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061-749-3035)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본격화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190명 대상 연말까지 운영

보성군이 고령층의 건강관리 역량 강화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날 28일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디지털 기반 건강서비스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관내 어르신 19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신체활동·투약 관리 등 건강행태 개선을 목표로 한다.

참여자에게는 블루투스 기반의 스마트 건강 측정기기(손목 활동량계·체중계·혈당계·혈압계)가 제공되며, 보건소 전담 인력이 사전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건강군, 전(前)허약군, 허약군으로 분류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미션과 비대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오늘 건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혈압·혈당 등 주요 건강지표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며, 참여 어르신들은 월별로 부여되는 건강 미션을 통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



보성군이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AI-IoT 사업 전문인력이 대상자에게 혈압측정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고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키우게 된다.

8개월간의 비대면 건강관리 후에는 사후 건강 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를 위한 피드백도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층의 자기

건강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구례 매천도서관

도서관 수요일야행

뜨거운 호응 속 마무리

구례 매천도서관이 지난날 28일 ‘도서관 수요일야행’ 행사를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구례 섬진강 문화레저 파크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민과 작가 10여 명이 각자의 책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북덕방’ 코너를 개최해 활발한 책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 작가인 오치근·바나리 작가와 함께 하는 ‘구례 구도심 여반 스케치’ 프로그램도 진행해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시각으로 구례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 한국문학번역원 원장을 역임하고 ‘밤에 쓰는 편지’, ‘가만히 좋아하는’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김사인 시인이 진행한 시 콘서트 ‘작시현상’에는 전주, 남해 등 인근 지역에서도 팬들이 찾



아와 객석을 가득 매웠다.

도서관 수요일야행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다음 행사는 6월 25일을 시작으로 7월 30일, 8월 27일, 9월 24일, 10월 29일에 열린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 구례군이 공동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전남문화재단, (사)큰산사람들이 주관하며, 지역 내 문화 거점 공간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군 11개 읍·면 ‘복지+안전협의체’ 출범

복지·안전 취약계층 발굴 활동

보성군이 지난날 29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읍·면 민간위원장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성군 복지+안전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

‘복지+안전협의체’는 보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5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추진하게 된 ‘복지에 안전을 더하다! 스마트 온(ON)마을 600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12개 읍·면에 구성된 ‘복지+안전협의체’는 각 읍면장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읍·면별로 20명 이내, 총 164명이 활동한다.

협의체는 지역 내 복지·안전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협업을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와 전기·가스 등 가정 내 위험 요소 사전 점검, 주거환경 개선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 온(ON)마을 600사업’으로 ▲태양광 LED(엘이디) 조명 설치 ▲스마트 안전 지팡이 지원 ▲전동차 야광 안전 덮개 제공 등의 지역 특성에 맞춘 생활밀착형 안전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복지+안전협의체’와 협력해 복지와 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과 생활 안전망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 구봉산 숲속야영장 개장...야영테크·숲속의 집 33면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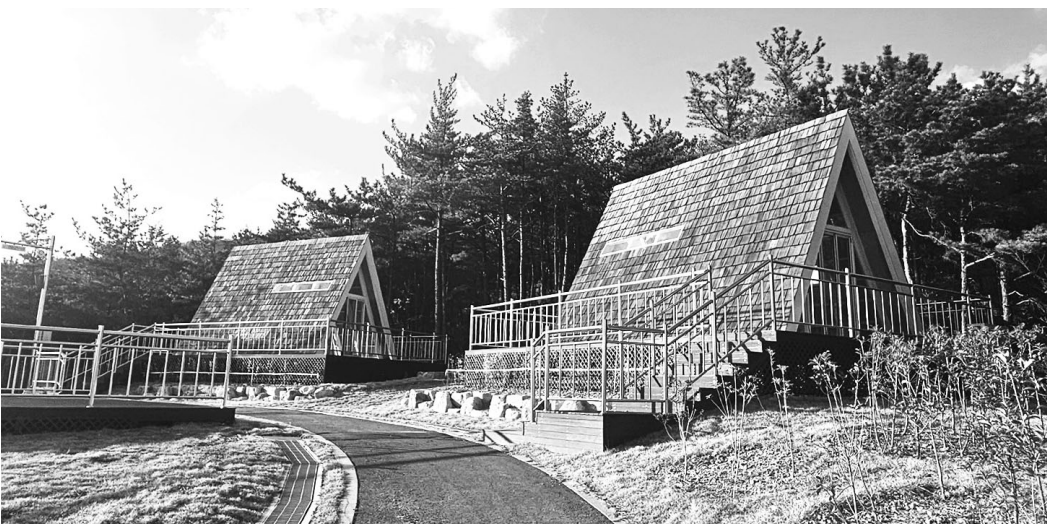
7일 개장식...30일 정식개장

광양 ‘구봉산 숲속야영장’〈사진〉이 오는 7일 개장식을 갖고 30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구봉산 숲속야영장’은 지난 2021년 산림청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성된 시설로, 어린이테마파크 내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을 목표로 국·도비 19억원을 포함해 총 2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야영테크 28면과 숲속의 집 5동이 마련돼 총 33면에서 동시 야영이 가능하며, 화장실·샤워장·취사대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갖췄다.

개장식 이후에는 주말에 시범운영되며, 오는 6월 30일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이용 요금은 야영장 구역에 따라 2만5000원에서 5만원까지이며, 예약은 6월 중순부터 인터넷 예약사이트 ‘캠핏’(www.camfit.co.kr)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구봉산 숲속야영장이 2027년 개관 예정인 국립광양 소재전문화관, 상상놀이터와 함께 구봉산을 중심으로 한 시민 휴식공간이자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개장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권향엽 국회의원,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골약동 주민과 캠핑 참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장식 행사는 사업 경과 보고, 기념사, 개장 퍼포먼스, 기념 촬영, 캠핑 체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구봉산 숲속야영장은 도심과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고, 자연 속에서도 주변 상권의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시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GS칼텍스 예술마루 대극장

서형일 상임지휘자 취임 연주회

여주시립합창단이 오는 5일 오후 7시 30분 GS칼텍스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제8회 정기연주회 ‘베르디 레퀴엠’을 선보인다.

이번 연주회는 올해 새롭게 여주시립합창단의 지휘봉을 잡은 서형일 상임지휘자의 첫 공식 무대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오페라의 거장으로 불리는 주세페 베르디(G. Verdi)의 대표작 ‘레퀴엠’을 통해 웅장하고 깊이 있는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여주시립합창단과 광양시립합창단,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참여하는 100여명 규모의 대형 무대로 꾸며지며, 국내 최정상 성악가인 박현주(소프라노), 이아경(메조소프라노), 정호윤(테너), 서진호(베이스)가 솔리스트로 출연해 음악의 완성도를 높인다.

서형일 지휘자는 “레퀴엠은 비극 속에 담긴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웅장하게 담아낸 명작으로 여주시립합창단과의 첫 무대를 이 작품으로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레퀴엠’은 베르디가 작곡한 장례미사곡으로 극적인 합창, 장엄한 오케스트라, 섬세한 아리아가 어우러진 걸작이다. 특히 ‘진노의 날(Dies irae)’로 대표되는 압도적인 구성은 관객에게 잊지 못할 전율을 선사한다.

입장권은 전석 5000원이며 광무동 예총사무실(061-642-7466), 여서동 가을문고(061-652-3071), 신기동 청음악기사(061-681-6513), 학동 디지털세상(061-683-7770) 등 예매처에서 오프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립합창단(061-659-56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